

장흥군, 귀농·귀촌 유치 “참 잘했어요”



장흥군은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2017년도 귀농·귀촌 유치추진 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라남도는 최근 농업농촌의 활

력증진을 위한 귀농귀촌인 유치에 노력해온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유치추진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항목은 귀농인 유치, 전담부

전남도 ‘귀농·귀촌 유치추진 종합평가’ 장려상을 한 해에만 236가구, 307명 귀농·귀촌인 유치

서 운영, 박람회 및 설명회 참가, 협의회 운영, 예산확보 등 귀농·귀촌 유치관련 업무 전반에 걸쳐 7개 분야로 구성됐다.

이번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장흥군은 2014년부터 귀농·귀촌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체계적인 도시민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성공적으로 정착한 선례 귀농인들은 귀농인연합회를 구성하고 예비 귀농인들의 멘토 역할을 맡아 지역 분위기에 쉽게 적응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다.

귀농·귀촌에 특화된 정책을 수립하고 도시민의 유치를 위해 홍보와 상담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 해에만 236가구, 307명의 귀농인을 유치했다.

군 관계자는 “일시적인 효과보다는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접점으로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김종민 기자



여수시 어르신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본격화

여수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담당할 어르신 다목적체육센터의 건립이 본격화된다.

여수시는 이달 말 어르신 다목적체육센터의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오는 12월에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이 시설은 웅천택지개발지구

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한 후 5월부터 기본·실시설계를 추진해왔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 다목적체육센터가 어르신들에게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도록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달 말 실시설계 마무리 후 12월 착공

웅천에 3층 규모…체육관·게이트볼장 등

에듀파크 부지에 연면적 2726㎡, 지상 3층 규모로 들어선다.

체육관을 포함해 체력단련실, 상설스포츠센터, 탁구장, 당구장, 게이트볼장 등을 갖추고 내년 12월에 문을 열 예정이다. 사업비는 국비 28억 원 포함 총 85억 원이 투입된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센터의 설

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웅천택지개발지구 내 에듀파크 부지를 1~3세대가 어우러지는 복합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어르신 다목적체육센터를 포함해 이순신도서관, 유키종합지원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여수=송기홍 기자

“전통의 맛과 향기를 찾아” 장흥 청태전 나들이 축제 성료

천년 역사 청태전 재조명…전국 차인들에 홍보

장흥군은 24일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 주제관에서 2017 장흥 청태전 나들이 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천년 역사 청태전의 새로운 면모를 재조명하고, 장흥 전통차를 전국 차인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개최됐다.

장흥군농업기술센터가 주최하고, 장흥청태전연구회가 주관했으며, 청태전연구회, 장흥차생산자협의회, 장흥차연구회 등 지역 차인과 대구차문화협회, 광주차문화협회, 해명다례원, 차의문화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지역 제작업체의 차 시음과 전시, 디례시연, 청태전 맛내기·멋내기 대회, 차인회별 들차회, 청태전 티페어링 및 차과자 전

시 등으로 꾸며졌다.

차 전시 및 시음 행사에는 15개 다원이 참여해 다식과 디도구 전시, 청태전의 시음, 판매, 홍보 등 의 행사를 가졌다.

특히 차를 이용한 다양한 티푸드, 차와 어울리는 다식을 전시하여 관람객들에게 호응을 받았다.

청태전 페포먼스 경연은 ‘청태전 맛있게 우리기’와 ‘청태전 맛있게 꾸미기’로 진행됐다.

‘청태전 맛있게 우리기’는 각 다회별로 주어진 10개의 청태전을 정해진 시간 안에 우려낸 것을 심사하고, ‘청태전 맛있게 꾸미기’는 청태전을 미시는 전통의 모습에 가깝게 재현하거나 새롭게 창조한 차자리를 심사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이날 청태전 맛있게 우리기 및 청태전 맛있게 꾸미기 경연 금상은 평화다원 대표 김수희(55)가 수상했다.

군 관계자는 “오랜 역사와 함께 한 청태전을 고유성 및 우수성을

비탕으로 6차산업 수익모델로 육성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가는 데 힘쓰는 등 청태전의 본고장으로써 장흥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종민 기자

무안군 현경면, 특색사업 실시

해운동마을에서 “행복한 마을 건강한 가정 만들기”

무안군 현경면(면장 서평득)은 2017년 1읍면 1특색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20일 해운2리 해운동마을에서 이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청년회, 의용소방대 등 참여단체들과 마을주민 등 50여명이 참여해 ‘행복한 마을 건강한 가정 만들기’

사업을 실시했다.

이날 현경면 특색사업에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 추진의 일환으로 마을주민들이 모여 마을회관 및 정자 주변 정화활동을 실시했고, 건강한 가정 만들기 대상자인 이고례(74세)씨 가정에는 도배, 장판, 전기접침



및 대청소 등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서평득 현경면장은 ‘바쁜 농사철

임에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회관 및 정자주변을 정비하고 여러 단체가 협력해 어려운 가정에 도움을 드려 감사하고 뿐 듯하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모두가 잘사는 현경면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진도군, 임업발전·활성화 위한 임업인 간담회

100여명 참석해 톱밥배지 표고버섯 재배자 성공사례 발표

진도군이 임업발전·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간담회를 진도군 산림조합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진도군산림조합, 한국임업후계자 진도군지회, 진도군 표고생산자연합회, 진도군나우회, 신림법인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3일(월) 열렸다.

참석자들은 임업발전과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소득 창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톱밥배지 표고버섯 재배자의 성공사례 발표와 진도군 산림시책에 대해서도 공유하

는 시간을 가져 의미를 더했다.

이동진 군수는 “진도에서 산림을 활용하지 않고는 지금보다 더 풍요로운 지역을 만들 수 없다”며 “이번 간담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창출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농원·공모사업 등 각종 보조 사업을 발굴 신청해 다수의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는 물론 예산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진도=조상용 기자

지역공감 미래창조·정통직업 전화 062)224-5800
 fax 062)222-5548

湖南新聞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